

군산 귀농·귀촌 53% 증가

'20년 386세대 674명 안착... 올해 임시거주시설 등 사업비 6억 여원 편성

군산시는 지난해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386세대 674명의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440명 대비 53%가량 증가한 수치로 군산시의 귀농·귀촌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 분야는 81세대 147명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도시민들이 귀농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침체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긍정적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산시는 귀농 귀촌 유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수도권 도시민 홍보 및 유치 활동,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귀농·귀촌

홈페이지 개설, 상시 민원 해결시스템 구축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와 귀농·귀촌 종합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도시민 유치활동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임시거주시설 조성 과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등 5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편성,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임차료 50% 지원) △농기주택 수리비 지원(1,000만원/개소당) △귀농귀촌인보급자리 조성(10개소)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연수수당 80만원/1개월) △귀농귀촌 교육 운영 (100명 선착순 모집) 등이 추진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고정금리 2%로 농업창업 분야 최대 3

억 원 주택구입분야 최대 7,500만원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촌 현직적용 및 지역민과의 화합을 돕기 위하여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촌생활 실용교육·동아리 활동 지원·재능기부 활동 지원 등으로 뒷받침 없는 귀농귀촌 정착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귀농·귀촌인이 군산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가 될 것이다"며 "최근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정책과 인구유치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20년 이상의 중증흡연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차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진행했다.

원광대병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시작

금연지원센터, 지난해 수료 6개월 후 금연 성공률 평균 61.6%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20년 이상의 중증흡연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차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진행했다.

전북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3기 사업에 재선정되어 의욕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금연캠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열린 2021년 금연캠프는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룹심리상담, 종합건강검진(폐 CT촬영, 치과검진, 혈액검사 등), 다양한 건강 힐링 프로그램 등 그동안 실시해 금연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했다.

이영훈 금연캠프 분과장은 입소식에서 "캠프 참가자들의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와 건강관리를 위해 캠프를 최소 인원으로 나누어 구성했다"며 "캠프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금연캠프를 마치고 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7차에 걸쳐 실시했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캠프 수료 6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평균 61.6%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더욱 우수하게 향상된 금연 성공률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총력

익산시, 영업 제한 음식점·카페 등 200만원 지급

익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밤 9시 이후로 매장 내 영업을 중단된 식당과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에 지급된다.

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로 연간 매출액 10억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업소가 해당되며 휴·폐업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해 접속 후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

향은 버팀목 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지난 11일 신청을 시작으로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차 지급에 누락된 업소는 오는 25일부터 시 위생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 업주들이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6개월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유보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2,837여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는 10,846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울 때 인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중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했다.

이영훈 금연캠프 분과장은 입소식에서 "캠프 참가자들의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와 건강관리를 위해 캠프를 최소 인원으로 나누어 구성했다"며 "캠프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금연캠프를 마치고 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7차에 걸쳐 실시했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캠프 수료 6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평균 61.6%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더욱 우수하게 향상된 금연 성공률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신설

현장조사,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리업무 수행

익산시가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TF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5일 아동보호TF팀을 신설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업무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아동보호TF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배치됐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피

해아동에 대한 점검과 관리업무를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드림스타트,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아동보호에 힘을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아동보호TF팀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개월 간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71건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기요금 지원 홀몸어르신 42세대 대상

군산시는 군산지역 전력 공급업(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한전KPS 군산사업소),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에너지 취약세대 전기요금 지원을 1년간 연장하기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5년째 진행 중인 '에너지 취약세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란 사회공헌 공유가치 창출(CSV) 협업의 일환으로 군산지역 전력 공급업인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와 한전KPS 군산사업소가 군산시 및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하여 관내 에너지 취약세대인 홀몸어르신에게 월정액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마다 지원세대와 지원금액이 변동이 발생하는데 올해에는 홀몸어르신 42세대에 월 12,5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군산에서 추천하며, 지원방식은 지원금의 개인별 편차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청렴도 향상 나서 감사공무원 모니터링 강화

익산시가 고강도 청렴 특별대책을 추진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 현장에 감사위원회 전직원을 투입해 금품 수수 행위 등 현장 모니터링과 애로사항 청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 공사분야 부정부패가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올해 새롭게 발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공사현장의 비리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계약한 공사 현장에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업체 대표자·현장 소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사분야 금품·향응·편의요구는 홈페이지 신고센터와 감사위원회(859-5018)로 신고 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